

# 동남아시아 종교 깊게 보기

## Exploring Southeast Asia through its Religions

일시 · 2016.5.12~6.23 매주 목요일 오후 6:30-8:00 (총 7회)  
장소 · 아세안홀, 한-아세안센터 (중구 프레스센터 8층)  
대상 · 일반인 70~80명 (센터 홈페이지 공개 모집, 선착순 선발)  
주최 ·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의 공동체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가 2015년 말 출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문화공동체는 10개 회원국, 6억4천만 인구,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 다양성 속의 동남아인을 하나의 통합된 '아세안 시민'으로 묶어주는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아세안센터 15번째 아세안 열린강좌시리즈에서는 다양성과 혼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종교를 들여다보고, 종교가 각국의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과 현상을 알아 감으로써, 동남아 각국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1회 5월 12일

### 경전과 법전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사회

#### Between God and Government: Religion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서명교 | 한국외대 마인어과 교수  
Prof. Seo Myengkyo | Department of Malay-Indone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현대 동남아시아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사적 영역에 포함되지만 현대 동남아시아 사회는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다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강의는 동남아시아에서 종교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다음의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한다. 첫째, 무엇보다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왜 종교를 주목해야 하는가, 둘째, 동남아시아에서 종교의 위치는 종교적으로 정해지는가 아니면 사회적, 혹은 법적으로 정해지는가이다.

| 강사약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학과장,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요 저서 | State Management of Religion in Indonesia, New York: Routledge, 2013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이슬람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강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이슬람의 최근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이 기존의 종교 전통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것이다. 사회문화적 영역,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이슬람화 양상뿐만 아니라 종교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강사약력 | 호주국립대 인류학 박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동남아 학회 편집위원장 | 주요 저서 | Advancing the Regional Commons in the New East Asia(2016, 공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2014, 공저), 맨발의 학자들: 동남아 전문가 6인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2014, 공저), 적도를 달리는 남자: 어느 문화인류학자의 인도네시아 깊이 읽기 (2012),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2012, 역서)

2회 5월 19일

###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와 종교적 다원성 Islamization and Religious Plurality in Southeast Asian Islam

김형준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Prof. Kim Hyung-Jun |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이슬람의 유입이 본격화된 14~15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의 종교 전통은 이슬람과 힌두불교, 토착 종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립되어 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중동에서 전개된 이슬람화 움직임이

3회 5월 26일

### 동남아의 토속신앙: 외부문명과 내부세계의 교차

#### Indigenous Beliefs in Southeast Asia: Crossword of External Civilization and Internal World

장준영 |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박사  
Dr. Jang Jun You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동남아는 종교적으로 상좌불교권과 이슬람권으로 양분될 수 있는데, 베트남과 필리핀처럼 대승불교와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가에서도 모든 종교는 외부문명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종교의 양태는 동남아 고유의 기층문화인 토속신앙과 같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종교의 이름으로 토속신앙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강좌는 동남아에 산재하는 토속신앙의 세계를 대륙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남아 토속신앙의 공통적인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강사약력 | 한국외대 강사, 한국외대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외대 북벵골만연구사업단 연구교수 | 주요 저서 |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KIEP, 2012), 미얀마의 정치경제와 개혁개방: 성과와 과제(지식과 교양, 2013), 미얀마 현대정치 이해: 군부, 이데올로기, 종교(불민, 근간)외 논저 다수

## 음식천국 동남아의 종교적 다양성 Religious Diversity of Southeast Asia, Food Paradise

김이재 |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Prof. Eje Kim |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동남아는 동양과 서양,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음식문화의 천국이다. 마법처럼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유럽 열강은 동남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와 식민지를 개척하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고, 지금도 동남아는 열대의 풍부한 식재료와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담긴 음식으로 세계적인 셰프들의 사랑을 받는 미식 중심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태국의 맛사만 커리, 인도네시아 렌당,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로 꼽힌 말레이시아의 페낭 아삼 락사 등은 열대의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동성 뿐 아니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동남아의 종교 세계와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다. 특히 불교·도교·이슬람교·힌두교·기독교 등의 종교행사 및 축제와 관련되어 발달한 음식문화(foodway)와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화려한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강렬한 체험을 제공하며, 성년식·결혼식·장례식 등 전통의례 및 종교와 관련된 각 종족의 음식문화는 동남아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화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물(icon)이 된다.

**| 강사약력 |**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베트남 지역연구) 및 지리교육학 박사(동남아 음식문화 연구),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런던대학 연구원 **| 주요 저서 |** 펙키 동남아: 사랑과 행복의 상징, 두리안을 찾아가는 힐링 로드(시공사, 2013),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지리적 상상력(센터, 2015) 외 논저 다수

##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인도네시아 힌두문화를 중심으로 Hinduism in Southeast Asi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Hindu cultures in Indonesia

김예겸 |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HK교수  
Prof. KIM Yekyoum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동남아시아의 '중층적' 문화구성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끼친 힌두교의 문화적 함의와 상징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힌두문화, 특히 인도네시아 발리섬 힌두문화의 현대적 표상과 맥락화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힌두문화를 논하고자 한다.

**| 강사약력 |**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부원장, 한국동남아학회 상임이사, Suvannabhumi 부편집인, Asi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편집위원, 영국 Hull 대학교 동남아학(사회인류학) 박사 **| 주요 저서 |**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공저, 명인출판사, 2010), 주민과 보전(역서, ISEE, 2014), 동남아문화이 야기(공저, 슬과학, 2015), ASEAN-Korea Relations(공저, Nulmin, 2015)

## 동남아시아 전통공연예술에 끼친 인도 종교서사시 「라마야나」의 영향 The Influence of <Ramayana> on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of Southeast Asia

허동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연구교수  
Prof. HUH Dongsung | The World Ethnic Dance Institu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기원전 3세기 경 고대 인도의 음식시인이자 현자인 발미끼가 저술, 혹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인도의 대하 종교서사시 「라마야나(라마의 여정)」는 인도 각지는 물론 기원 1세기 이후부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권역에 널리 전파되어 문학, 미술, 건축은 물론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의 주요 소재로써 연행되어 왔다. 지역과 판본에 따라 「라마야나」의 명칭과 내용, 구성은 차이가 있으나 악마 라바나를 처단하여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회복하기 위해 비슈누 신의 여섯번째 화신으로 세상에 내려온 라마 왕자의 파란만장한 모험담을 주요 모티프로 공유하고 있다. 「라마야나」는 신과 인간, 악마, 동물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수많은 극적 에피소드들을 통해 정의, 의무, 사랑, 정절, 우애 등의 보편적 주제와 교훈을 전달하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친화력 있게 수용, 전승되어 왔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전통 무용과 연극 형태로 형상화된 「라마야나」의 연행 양상과 특성, 심미적 가치를 시청각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강사약력 |** 연극학 박사(중앙대),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양연극학회, 한국공연문화학회 이사 **| 주요 저서 |** 동양 전통연극의 미학(공저, 현대미술사, 2001), 전통 공연예술의 재조명(공저, 박이정, 2005), 춤과 문화(공저, 민속원, 2011), 인도연극의 전통과 미학(역서, 동양공연예술연구소, 1997) 외 논저 다수

## 동남아의 불교와 사회 The Buddhism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김홍구 | 부산외대 태국어과 교수  
Prof. Kim Hong-koo | Divis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동남아는 종교적 박물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대륙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이 상좌부불교를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상좌부불교는 고대 동남아 왕국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또는 민중의 신앙 대상으로 동남아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이 강의에서는 동남아로의 상좌부불교의 도입과 오늘날까지의 발전과정 및 그 정치·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강사약력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청의용합학부 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태국학회 회장, 국제지역학회 회장, (사)한국동남아연구소장 역임 **| 주요 저서 |** 태국 불교의 이해(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태국문화의 즐거움(스토리하우스, 2016), 태국정치입문(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 속 동남아 현상(명인문화사, 공저, 2012), 문화로 배우는 타이어 강독(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6) 외 논저 다수